

전남 기업들 인도 공략 통했다...1297만달러 협약 성과

뉴델리·콜카타 상담회서 11건 MOU 체결 화장품·K푸드·친환경산업 현지 관심 확인

전남도 기업들이 세계 최대 소비시장 중 하나인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서 1297만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해외 판로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광주전남지원본부와 공동 추진한 '2026 전남도 인도 시장개척단'이 11건, 1297만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시장개척단은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인도 수도 뉴델리와 동부 경제권 중심지인 콜카타를 방문해 현지 바이어와 1대 1 맞춤형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상담회에는 화장품, 첨단산업, 식

품 분야 전남 기업 6개사가 참가해 현지 수요를 파악하고 신규 거래선을 발굴하며 인도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코리아디지탈의 산소·이산화탄소 센서가 스마트팜과 제조 시설 관련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다. 에이비알의 배터리 재활용 솔루션은 인도의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기술협력과 수출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에스에프씨는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는 계면활성제를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소비재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여유협동조합의 기능성 화장품은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한류 확산과 K-푸드 인기로 협업이 대륙식품

의 김밥용 김과 성지에프앤디의 떡류 제품에 대한 구매 상담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시장개척단은 수출 업무협약 체결 외에도 신규 바이어 발굴, 현지 유통망 확보, 첨단·친환경산업 협력 기반 구축, K-푸드와 화장품 수출 확대 가능성 확인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전남도는 이번 시장개척단 성과를 토대로 성장 잠재력이 큰 서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시장개척단은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넘어 전남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였다"며 "후속 상담과 바이어 관리 지원에 실제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광주전남지원본부가 공동 추진한 '2026 전남도 인도 시장개척단'이 11건, 1297만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중기부·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노무 애로 해소

중소벤처기업부가 노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노무사회)에서 소상공인 노무 애로 상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노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상담회에는 중기부와 협업하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 편의점, 카페 업종의 소상공인이 참석했다. 단기 근로자 채용 비율이 높아 노무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이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노무 관리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와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 노무 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해 현장 소상공인들이 마주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노무 상담 변호사 상담과 대리인 선임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개별 소상공인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소개했다. 김은지 기자

광주·전남 공공건축물 26개소 새단장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2.0' 사업...기후위기 대응 향상도

광주·전남지역의 동네 도서관과 경로당 등 공공건축물이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새 단장에 나선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해 에너지 성능 개선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성능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사업 대상은 총 26개소(광주 2개소·전남 24개소)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광주는 경로당 1개소, 노인복지시설 1개소, 전남은 경로당 10개소, 노인요양시설 4개소, 노인복지시설 2개소, 기타 공공시설 4개소, 기타 전시장 4개소다.

특히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이 포함돼 지역 밀착형 복지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노후된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그린리모델링 시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과 함께 기후 위기로 인해 발생이 빈번해진 폭염, 폭설, 홍수 등의 기후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력 확보 기술까지 지원한다.

또 그린리모델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건물의 종합적인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에 더해 건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및 여러 동의 노후 건축물의 묶어서 함께 지원하는 군집형 사업도 추진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공모기간을 운영해 총 535개소가 접수했고,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 에너지 절감효과, 기후적용 기술 적용 여부, 지역마중력 등 평가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전국에서는 총 318개소가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강원 123개소, 경기 34

개소, 전북 31개소, 충북 30개소, 전남 24개소, 충남 16개소, 경남 13개소, 대전 12개소 등이다.

특히 올해는 그린리모델링 효과에 대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일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이 연결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중·대규모 건축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선정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 중에는 지역 내 그린리모델링 대표사례가 될 수 있도록 첨단 에너지절감 기술과 디자인을 도입한 시그니처 사업 5개소가 포함돼 있다.

정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공공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단장한 동네 도서관 및 전시장 등 친숙한 공간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린리모델링을 보편화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이 민간으로 확산이 되고, 지역의 녹색건축 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한전, 중동 전력시장 공략 '속도'

사우디 자푸라 2단계 사업 수주...글로벌 경쟁력 입증

한국전력이 사우디아라비아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가 수주하며 중동 전력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전은 최근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랍코와 자푸라 2단계 열병합 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에 대한 전력 및 증기 판매 계약(PPA)을 체결한 데 이어 두산에너지와 건설공사 계약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발전용량 331MW 규모의 열병합 발전소를 오는 2029년 6월까지 건설한 뒤 17년 동안 전력과 증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시간당 증기 생산량은 약 465t 규모로 총 매출은 약 2조1000억원(1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한전이 지난 2022년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한 자푸라 1단계 열병합 사업의 후속 사업이다. 자푸라 1단계 사업은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어 발전용량은 317MW 규모다.

한전은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기술력과 사업관리 역량을 입증했고 이를 바탕으로 발주처의 신뢰를 확보해 2단계 사업을 단독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 운영은 한전과 아랍코가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맡는다. 발전소 건설에는 두산에너지가 참여하고 금융은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은 한전이 담당하는 등 '팀코리아' 형태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국내 기업 해외 동반 진출 효과도 기대된다. 단순 발전사업 수주를 넘어 기자재 공급과 금융, 운영 분야까지 국내 기업이 함께 참여하면서 해외시장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전은 지난 2009년 사우디 라빅 중용 화력발전 사업을 시작으로 자푸라 1단계 열병합 사업, 사다위 태양광 사업, 루마 1·나이라이아 가스복합발전 사업, 다와드미 풍력사업 등을 잇따라 수주하며 사우디 전력시장 내 입지를 확대해 왔다.

한전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가스복합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동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발주 예정인 사우디 아랍코의 추가 열병합 사업 수주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아카데미홀 임대

-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광남일보 사옥 1층)**
-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임대문의 : 062)370-7080